



# 하나님 정부의 기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 12:17)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서 겪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을 만드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생명이 자라고 발달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법칙이나,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일정한 경로를 따라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동안 우리가 밖으로 튕겨 나가지 않게 붙드는 법칙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법칙을 만드셨고, 이 법칙에 따라 이 세상의 주민들과 천사를 포함한 다른 세계의 주민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지적 존재들에게 이 법칙들을 심어 주셨습니다(롬 2:15). 그러나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을 왜곡시켰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글을 써서 주셔야만 했습니다(신4:13).



**율법:**

- ▶ 하늘 성소에 있는 율법.
- ▶ 영원한 율법.



**안식일:**

- ▶ 안식일의 의미(중요한 이유).
- ▶ 안식일과 (세상의) 마지막 시간.



**율법, 안식일 그리고 예(경)배.**

# פרק א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 하늘 성소에 있는 율법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계 1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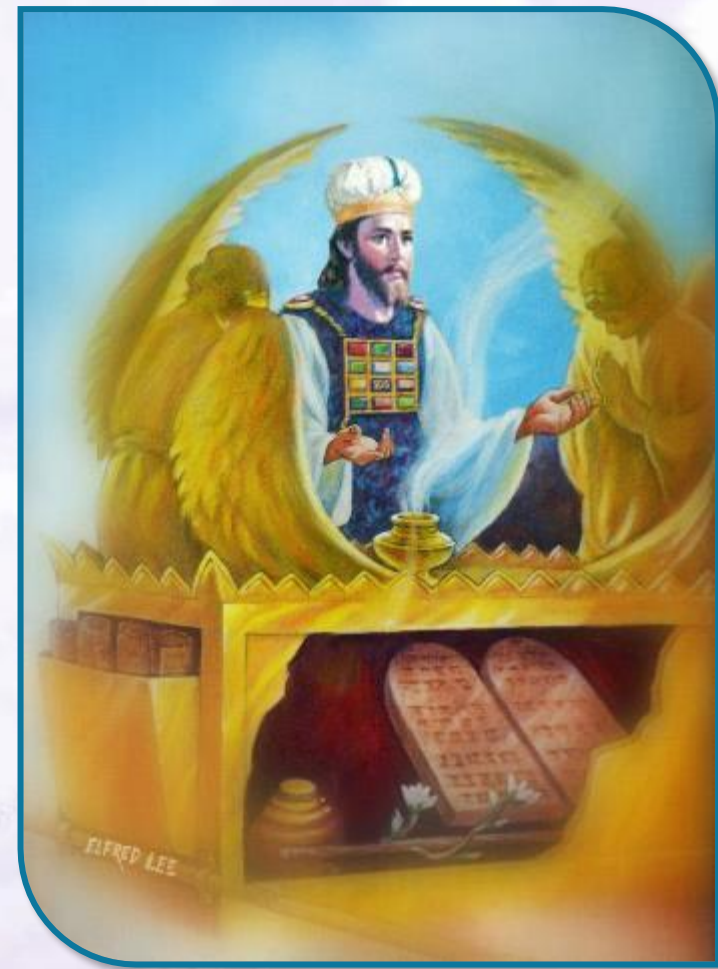
요한은 환상에서 열려있는 하늘 성소와 그 안에 있는 언약궤를 봤습니다(계 11:19). 그 이전에는 하늘 성소의 언약궤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 환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가 본 환상을 이해하려면 이 땅에 있는 성소와 성소에서 행해진 의식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언약궤는 일년 내내 “숨겨져” 있다가 대속죄일에만 “볼” 수 있었습니다(레 16:2, 12-13). 그날 심판이 있었고 죄는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레 16:30).

요한이 본 환상에서 우리는 계시록 11장의 장면 즉, 성경이 19세기 초에 대대적으로 퍼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 성소에서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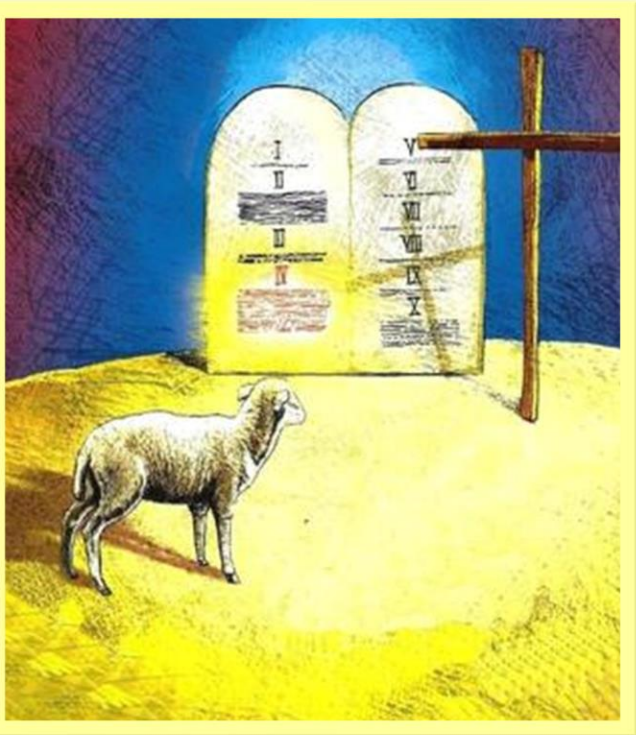
지상에 있는 모형본과 마찬가지로 하늘 언약궤안에는 사람을 심판 할 기준이 되는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또 언약궤에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는 거룩한 은혜의 상징인 속죄소가 있습니다(벧전 1:18-19; 요일 2:2; 시 85:10).



# 영원한 율법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 5:17)

비록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계명을 폐하셨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게 되지만, 종교 개혁자들이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땅에 있는 성소와 관련된 법과 의식이 폐한 것은 사실이지만, 도덕법(엡 2:15)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하고, 시간을 초월하며, 완전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지적 존재들의 행동을 다스립니다 (시 19:7; 119:142; 롬 7:7, 12, 16, 22, 25; 요일 3장 :4).

실제로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 하나님의 성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시. 89:14)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시. 89:14)

## 율법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우므로” (시. 119:172)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시. 119:142)



# 안식일



# 안식일의 의미(중요한 이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 20:8)

넷째 계명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고(출 20:8-11)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신 5:12-15). 안식일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 주일 중 하루를 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삶으로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맥락에서 안식일을 이해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안식일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었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켜 줍니다. 안식일은 억지로 지켜야만 되는 일이 아니라 쉬를 상징하고,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보장이고,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므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려하는 소망을 보여줍니다.



# 안식일과 (세상의) 마지막 시간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계 13:15)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사탄이 이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놓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가지 세력들이 나옵니다. 13장의 모든 내용은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계 13:4, 8, 12, 15).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때와 율법을 고치려 애썼고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그의 세력을 사용하는 지 알게 됩니다 (계 13:5; 단 7:25 - 42개월의 기간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와 같은 기간을 말함).



이 세력은 둘째 계명(우상을 예배하는 것을 금지함)을 폐하고, 넷째 계명(예배의 날)을 고쳐서 거룩한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꾸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사탄은 사고 팔 자유, 즉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명령을 바꾸어 “우상”을 예배하도록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계 13:14-17). 이 짐승의 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토요일 대신에 사람이 정한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율법, 안식일 그리고  
예(경)배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 14:7)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선포되는 세 천사의 기별은 예배와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안식일과 하나님의 율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계 14:6-7

심판 받을 날을 위해 준비하고(심판의 기준은 율법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안식일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함)

둘째 천사의  
기별

계 14:8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종교제도를 떠나라

셋째 천사의  
기별

계 14:9-11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지킬 지, 아니면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을 지 결정하라

마지막 때에 굳게 서는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계 14:12).

이 중요한 때 (하나님의)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깊이 뿌리 박아서 흔들리지 않는,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예수님의 믿음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안식일 지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퍼졌더라면 사람들의 마음은 경외와 경배를 받으실 창조주 하나님사랑하고 그분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차서, 우상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안 믿거나 불신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신 참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는 기별은 특별히 그들에게 넷째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할 것입니다.”